

90. 10. 12

## 환경처, 가정 쓰레기 실태조사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의 종류는 대도시로 갈수록 종이와 비닐이 많고, 시·군으로 갈수록 연탄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환경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생활쓰레기의 양은 하루 7만8천 t으로 1인당 2.2kg꼴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3만 t으로 전체의 38.3%, 5개 직할시가 26.1%를 차지해 이들 6개 대도시가 전국 쓰레기의 64.4%를 내버린 셈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쓰레기의 내용에서도 큰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연탄재의 비중은 28%에 지나지 않는 대신 종이류가 15.3%, 비닐류가 1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단위 지역에서는 연탄재가 45.1%로 가장 많았고 종이류가 10.9%, 비닐류가 5% 등이었다.

이는 농촌의 쓰레기가 급속히 '시화'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농·어·수산물 1회용 상품과 과일포장 등으로 종이와 비닐 쓰레기의 급증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도 연탄재 비중이 지난 85년 47.5%에서 8

# 생활쓰레기 공해 날로 심각하다

생활의 편리함을 좇는 세태에 악삭빠른 상흔이 겹쳐 생활쓰레기로 인한 공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포장지 등에 쓰이는 플라스틱은 일단 버려지고 나면 처리가 어려운 데도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매립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재활용방안 개발도 더디기만한 생활쓰레기의 실태를 알아본다.

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탄재가 여전히 가장 규모가 큰 쓰레기로 남아 있

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일본의 0.8kg, 미국의 1kg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많은

형편이다. 한편 환경처의 집계는 읍 이하의 농촌과 산간벽지가 빠져 있어 실제 전국적인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9만3천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품의 과대포장은 소비자의 부담을 부당하게 늘일 뿐 아니라 자원낭비와 쓰레기 공해를 부추긴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

의 추석을 앞둔 서울시내 대형 백화점 선물용품 포장실태 조사는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조사 결과 태평양화학 식품사

닐포장한 제품을 알루미늄캔에 넣고, 다시 나무상자에 넣은 다음 종이상자에 담은 등 무려 4중 포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인삼의 ‘인삼녹용연질캡슐세트’도 겹겹이 포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상위험이 없는 데도 알루미늄캔, 종이상자, 천을 깐 상자 등 3중으로 포장했

## 과대상품포장 공해 부추겨

내용비해 지나치게 크고 4중포장까지

다. 제품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상품도 많았다. 신세계의 ‘어란세트’는 어란보다 6배 가량 큰 바구니에 비닐을 가득 담고

## 소비자연구모임, ‘선물포장’조사

업부의 ‘정선옥로’(설록차)의 경우는 비닐포장한 제품을 알루미늄캔에 넣고, 다시 나무상자에 넣은 다음 종이상자에 담은 등 무려 4중 포장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인삼의 ‘인삼녹용연질캡슐세트’도 겹겹이 포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상위험이 없는 데도 알루미늄캔, 종이상자, 천을 깐 상자 등 3중으로 포장했

그 위에 어란을 올려 놓았고, 서우식품의 ‘냉장햄세트’는 알루미늄 캔 제품을 또 다시 3배쯤 큰 상자에 넣어 포장했다.

또 제일제당의 ‘백설수제햄세트’는 따로 비닐포장된 상태인 데도 비닐조각을 가득 깔아 이중포장한 다음 내용물보다 2배나 큰 상자에 담았다.

시민의 모임은 “포장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등 과대포장은 일종의 속임수 판매일 뿐 아니라 포장재료 대부분이 비닐·스티로폴 등 다시 활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대로 쓰레

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